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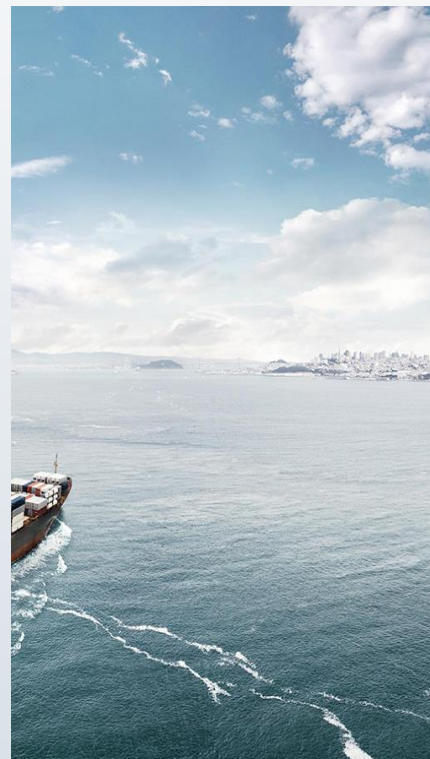


STL MARKET REPORT

Weekly Focus No.322

Updated October 27, 2020

The STL Market Report covers major issues affecting the world S&P market and provides an outlook for the market developments. The report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key developments impacting S&P market trends.



Contents

Issue & Trend	1
Bulk Carrier	5
- BC Sales Report	
Tankers	9
- Tanker & Container Sales Report	
Demolition	13
Key Indicators	16
STL News & Information	18
Contact Information	20

** 본 자료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내, 외신 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I . ISSUE & TREND

1. 세계해양포럼 27~29 일 열려...해양·조선·해운·항만·수산 분야 전문가들 참여

12 개국의 세계적 해양·조선·항만·수산·해운 및 금융 분야 전문가 60 여명이 연사·토론자로 참가하는 '2020 제 14 회 세계해양포럼(WOF, WORLD OCEAN FORUM)'이 27 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막을 올린다.

올해 포럼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맞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열리는 하이브리드형으로 진행된다. '미래로 한 발 더'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 행사는 29 일까지 이어진다. 행사는 기조 세션과 4 개의 정규 세션, 4 개의 특별 세션, 에필로그 세션, 3 개의 특별 프로그램 등으로 이뤄진다. 각 세션의 주제는 해양·조선·항만·수산·해운 및 금융 등과 관련된 것들이다.

이 포럼 김현겸 기획위원장(팬스타 그룹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 아래 열리는 올해 행사는 안내 포스터 그림이 보여주듯 아주 깊은 바다의 거무스레한 빛깔 속에 서로 이어져 무언가를 거둬올리는 그물과 끊임없이 물결치며 도전하는 파도의 형상을 담고 있다"며 "기존 규범과 가치가 근본에서부터 출렁이는 코로나 시대 이후에 대한 전망, 위협받는 해양의 환경, ‘언택트’ 혹은 ‘온택트’란 용어에 담긴 ‘뉴 노멀’ 등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고민하고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조 세션에는 세계 최초의 유엔 해양특사, 피터 톰슨(PETER THOMSON)이 '미래로 한 발 더, 뉴노멀 시대의 해양'을 주제로 강연한다. 그는 기조연설에서 "팬데믹 시대를 불러온 주요 원인이 자연 서식지 파괴로 인한 동물 매개 감염을 꼽고 해양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지구 환경 정화의 핵심"이라는 등의 내용을 역설할 예정이다.

또 미국 켈슨 마린의 토비아스 듀허스트 CEO, 스위스 타이드 오션의 마크 크레브스 공동설립자, 프랑스 플라스틱 오딧세이의 시몽 베르나르 CEO, 호주 'TAKE 3 FOR THE SEA'의 사라 비어드 CEO, 그리스 마란가스사 전 사장인 스타브로스 하찌그리고리스 해양건설턴트,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아르니 마티센 해양특보 등이 각 세션의 연사로 나선다.

포럼 사무국 측은 "이들 연사와 토론자는 각자 나라의 본인 사무실에서 WOF 회장 등을 배경으로 마치 행사 현장에 와 있는 것처럼 연설, 강연하고 그 모습을 화상시스템으로 담아 실시간 중계되도록 했다"며 "모든 행사는 마치 회의장에서 서로 만나 토론하는 것처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게 진행된다"고 말했다.

I . ISSUE & TREND

특히, 올해 포럼에는 처음으로 주한 캐나다 대사관·캐나다 헬리팩스시(市)가 국내외 조선해양 분야 기업들과 글로벌 해양비즈니스 네트워킹을 맺도록 하는 'B2B 온라인 매칭'이 시도된다. 행사와 프로그램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계해양포럼 홈페이지(WWW.WO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치솟는 컨테이너선 운임...발주는 '잠잠'

컨테이너선 운임이 치솟고 있는데도 신조선 발주가 감감 무소식이다. 올해 전 세계 교역량이 역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면서 선사들이 일시적인 현상만 보고 발주하기엔 불확실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컨테이너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지난 16일 기준 1448을 찍으며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746(10월 18일) 대비 두배 가까이 상승했다.

운임이 상승한 것은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 화물이 크게 늘어나면서다. 연말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했고 이를 운반할 컨테이너선이 부족해지면서 운임 상승을 부추겼다. 운항 수요 증가에 계선율(운항하지 않고 육지에 정박 중인 선박)은 5월 270만 TEU에서 43만 TEU로 떨어졌지만 선박 부족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운임 상승은 일단 선박 발주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선박 연료가격도 톤당 300달러대로 매우 낮아 실적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올해 나온 컨테이너선 물량은 극히 적다. 9월까지 전 세계 발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48% 하락했다. 1만 2000TEU급 이상은 7척만 발주되면서 41% 떨어졌다.

이에 따라 국내 조선업계 수주량도 저조하다. 한국이 올해 수주한 컨테이너선은 단 2척뿐이었다. 중견 조선소 대선조선이 국내 해운사 남성해운으로부터 따낸 1000TEU급 2척이 그것이다. 대형 조선사들은 올 들어 단 한척의 컨테이너선도 수주하지 못했고 수주량은 작년 9월과 비교했을 때 96%나 추락했다. 조선사들이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업계는 운임 상승을 일시적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조선을 발주하기엔 아직 시황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의 운임은 비정상적인 상태다. 오히려 너무 높은 운임이

I . ISSUE & TREND

불확실성을 높이는 상황"이라며 "수출업체가 무역분쟁, 코로나 19 재확산 우려에 재고를 미리 쌓아 두려고 하면서 운송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재고 쌓기가 끝나면 운임 하락은 뻔하다"고 말했다.

세계 교역량 전망도 부정적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이달 초 성명을 통해 올해 세계 교역량이 전년 대비 9.2%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엔 기저효과로 7.2%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다. 상황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기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그럼에도 조선업계는 컨테이너선 발주에 기대를 걸고 있다. 독일 하팍그로이드와 대만 에버그린마린이 컨테이너선 발주를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하팍로이드는 2 만 3000TEU 급 6 척, 에버그린마린은 1 만 5000TEU 급 최대 10 척 발주 계획을 세웠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하팍로이드가 상반기에 선박을 발주하려다 한 차례 연기했던 만큼 더 늦기 전에 발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3. 선주協 “포스코 물류 자회사 철회를”... 포스코 “해운·운송업 진출과는 무관”

포스코 물류 자회사 설립을 두고 포스코와 해운물류업계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해운물류업계는 포스코의 물류 자회사 설립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포스코는 해운업 진출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26 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는 포스코와 한국선주협회가 각각 증인과 참고인 신분으로 국회에 출석해 포스코 물류 자회사 설립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한다. 포스코에서는 김복태 포스코 물류통합 태스크포스(TF) 전무, 선주협회에서는 김영무 상근부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지난 5 월 그룹 물류 업무를 통합한 법인 '포스코 GSP'(가칭)를 연내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선주협회는 지난 21 일 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에게 보낸 건의문을 통해 "포스코는 물류 자회사 설립이 물류 생태계 교란과 무관하며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이는 억지 주장"이라며 "해운물류 산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물류 자회사 설립계획을 전면 철회해달라"고 했다.

I . ISSUE & TREND

이어 선주협회는 “포스코는 물류 자회사의 임직원 급여와 운영비를 보전하기 위해 속칭 ‘통행세’로 불리는 수수료 수입을 취할 수밖에 없어 해운물류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운업 진출은 하지 않겠다는 포스코 논리에 대해선 “해운법은 제철원료에 대한 자가수송만 규제하고 있어 철제품 수송을 위한 해운업 진출은 지금도 가능하다”면서 “물류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수사”라고 지적했다. 선주협회는 포스코 물류 자회사 신설로 포스코 화물 운송을 맡은 해운기업의 수익이 악화해 하역, 예선, 도선, 강취방 등 전체적인 항만부대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입장이다.

포스코는 선주협회 주장에 “현재 검토 중인 그룹 물류 업무 통합운영안은 포스코와 그룹사가 관리하는 계약관리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그룹 내 분산된 물류 기능과 조직, 인력을 통합하는 것”이라며 “해운업, 운송업 진출과는 무관하고 통행세나 물류 생태계 황폐화 지적도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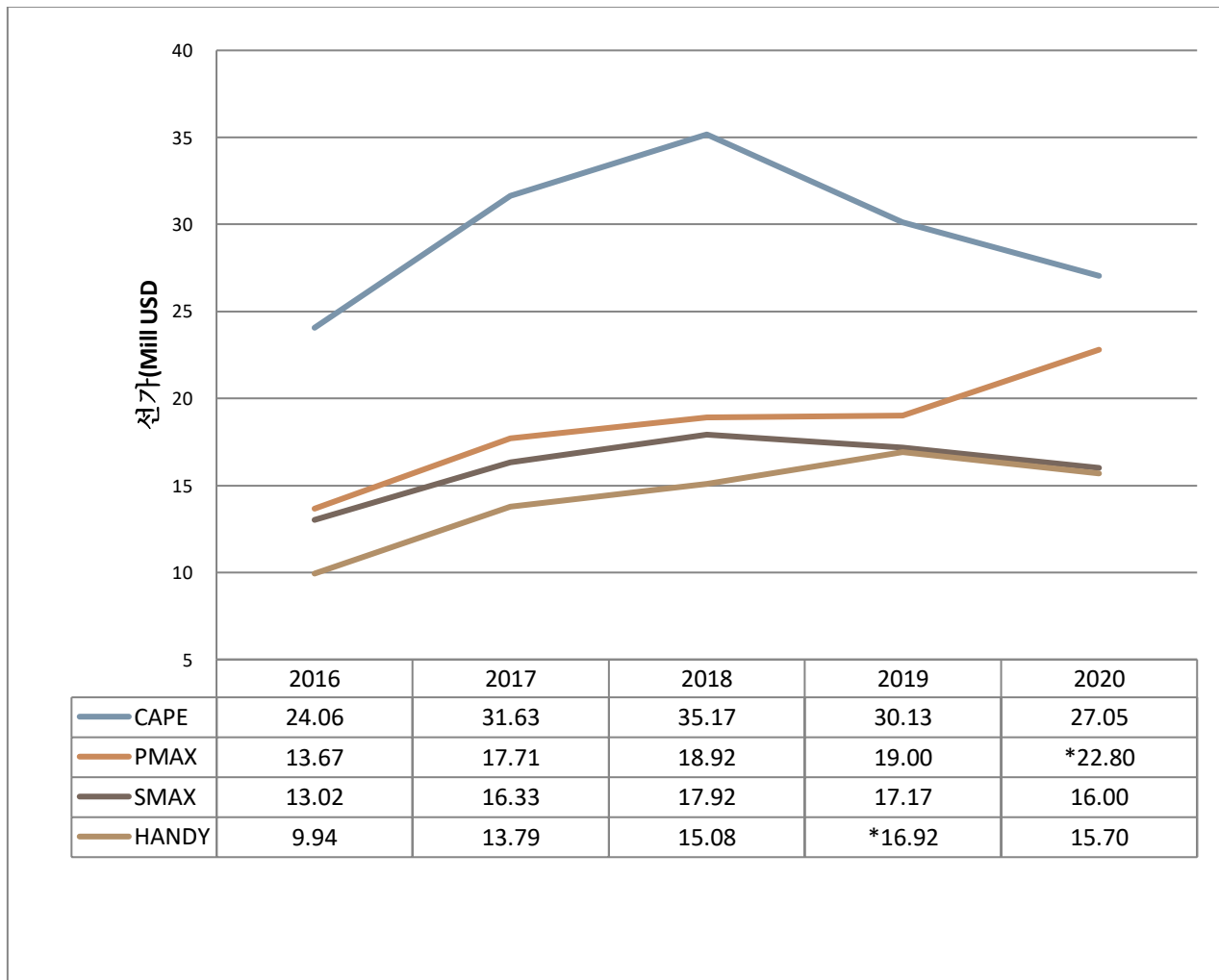
II . BULK CARRI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연평균 선가	2016	2017	2018	2019	2020
Capesize 180K	24.06	31.63	35.17	30.13	27.05
	-24.99%	31.43%	11.20%	-14.34%	-10.21%
Kamsarmax 82K	13.67	17.71	18.92	19.00	*22.80
*19 년까지는 76K 기준	-19.80%	29.57%	6.82%	0.42%	20.00%
Supramax 58K	13.02	16.33	17.92	17.17	16.00
	-16.91%	25.44%	9.69%	-4.20%	-6.80%
Handysize 37K	9.94	13.79	15.08	*16.92	15.70
*18 년까지는 32K 기준	-23.32%	38.78%	9.37%	12.18%	-7.19%

□ BC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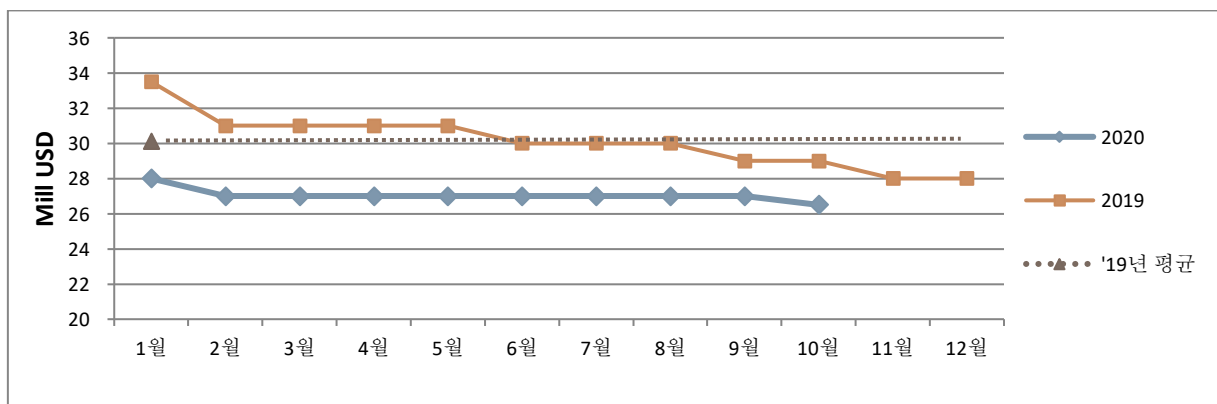




II. BULK CARRIER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2020	CAPE 180K	선가	28.00	27.00	27.00	27.00	27.00	27.00	27.00	27.00	27.00	26.50			27.05
		전월대비	0.0%	-3.6%	0.0%	0.0%	0.0%	0.0%	0.0%	0.0%	0.0%	-1.9%			-
		전년대비	16.4%	12.9%	12.9%	12.9%	12.9%	10.0%	10.0%	10.0%	-6.9%	-8.6%			10.2%
	KMAX 82K	선가	23.50	23.00	23.00	23.00	23.00	22.50	22.50	23.00	22.50	22.00			22.80
		전월대비	23.7%	-2.1%	0.0%	0.0%	0.0%	-2.2%	0.0%	2.2%	-2.2%	-2.2%			-
		전년대비	23.7%	21.1%	21.1%	21.1%	21.1%	18.4%	18.4%	21.1%	18.4%	15.8%			20.0%
	SMAX 58K	선가	17.00	16.50	16.50	16.50	16.00	15.50	15.50	15.50	15.50	15.50			16.00
		전월대비	0.0%	-2.9%	0.0%	0.0%	-3.0%	-3.1%	0.0%	0.0%	0.0%	0.0%			-
		전년대비	-5.6%	-2.9%	-2.9%	-2.9%	-5.9%	-8.8%	-8.8%	11.4%	11.4%	-8.8%			-6.8%
	HNDY 37K	선가	17.00	17.00	17.00	17.00	15.50	15.00	14.50	14.50	14.75	14.75			15.70
		전월대비	3.0%	0.0%	0.0%	0.0%	-8.8%	-3.2%	-3.3%	0.0%	1.7%	0.0%			-
		전년대비	0.0%	0.0%	0.0%	0.0%	-8.8%	11.8%	14.7%	14.7%	13.2%	13.2%			-7.2%
2019	CAPE	33.50	31.00	31.00	31.00	31.00	30.00	30.00	30.00	29.00	29.00	29.00	28.00	28.00	
	PMAX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SMAX	18.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50	17.50	17.00	17.00	17.00	17.00	
	HANDY (37k)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6.50	16.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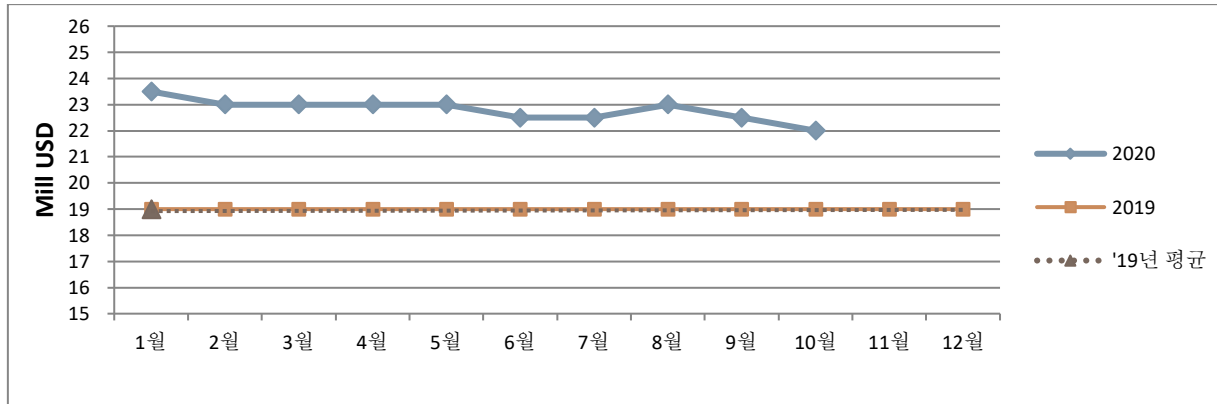
□ 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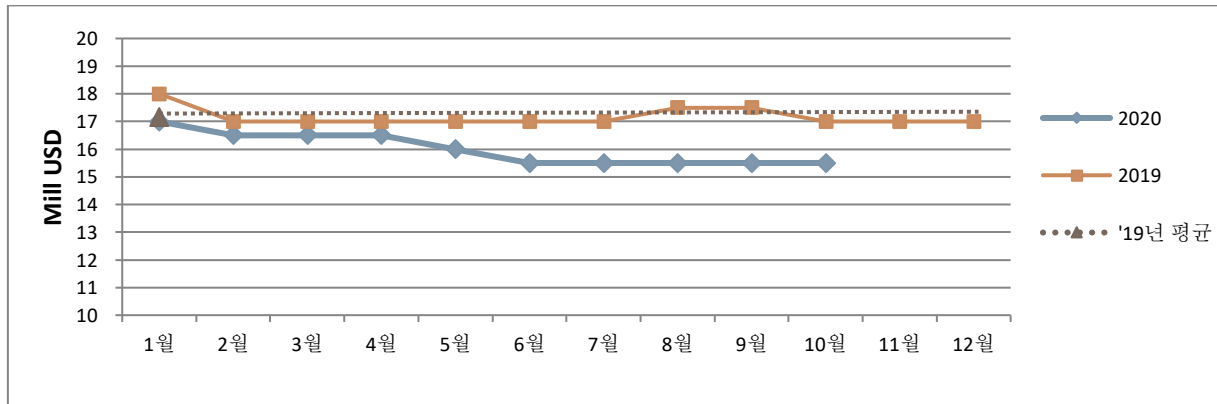


II.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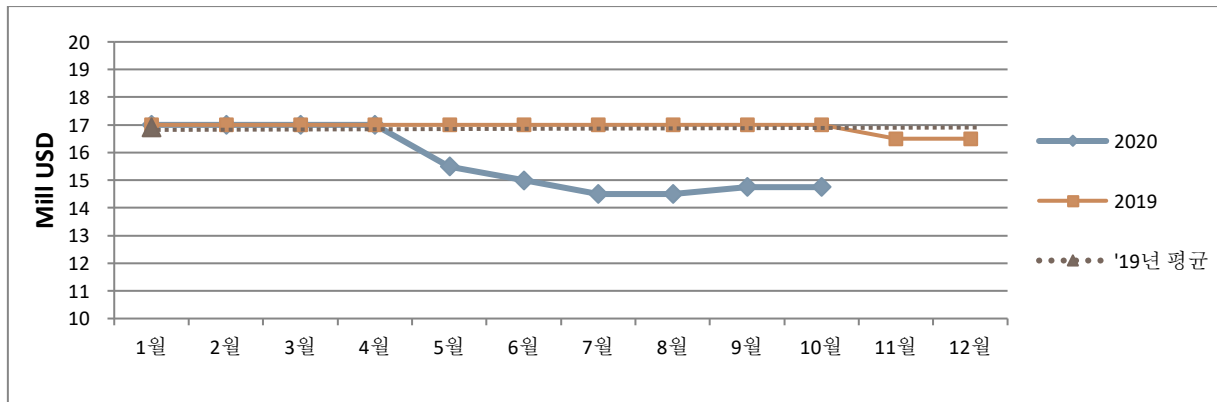
□ Kamsarmax *'19년까지는 76K 기준



□ Supramax



□ Handy



II . BULK CARRIER

III-1. Bulk Carri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GEAR	PRICE	REMARKS
BC	NSS HONESTY	229,500	2007	JAPAN	B&W		13.5	Undisclosed buyer
BC	BAOGANG GLORY	207,826	2008	JAPAN	B&W		16.3	Singaporean buyer
BC	KURENAI	86,000	2007	JAPAN	B&W		10.2	Chinese buyer
BC	CERBA	80,370	2010	KOREA	B&W		13	Undisclosed buyer
BC	CRIMSON MONARCH	77,116	2014	JAPAN	B&W		17.5	Greek buyer, BWTS fitted
BC	CLYMENE	73,600	2006	CHINA	B&W		7.75-7.8	Undisclosed buyer, ss/dd due Nov 20, BWTS incl. in the sale
BC	IRON KOVDOR	72,474	1998	JAPAN	B&W		3.95-4	Chinese buyer
BC	GH CITATION	63,292	2016	CHINA	B&W	C 4x30t	17	Omani buyer (Oman Shipping)
BC	GH BLACK CAVIAR	63,277	2016	CHINA	B&W	C 4x30t	17	
BC	WEST TREASURE	61,292	2014	JAPAN	B&W	C 4x30.7t	15.8	Japanese buyer, BWTS fitted
BC	SBI ZEUS	60,414	2016	JAPAN	B&W	C 4x30t	18.5	Undisclosed buyer
BC	NAVIOS SOLEIL	57,334	2009	KOREA	B&W	C4x30t	8.5	Undisclosed buyer
BC	PORT ESTORIL	52,822	2001	JAPAN	B&W	C 4x30t	4.2-4.6	Chinese buyer
BC	ACHILLEUS	50,992	2001	JAPAN	B&W	C 4x30t	4-4.2	
BC	M. EMIR AKSOY	47,245	1998	JAPAN	MITSU U	C 4x25t	3.18	Undisclosed buyer
BC	CHAMPION BAY	32,835	2000	JAPAN	B&W	C 4x30.5t	3.7-3.8	Undisclosed buyer
BC	IMKE SELMER	32,648	2010	CHINA	B&W	C 4x30.5t	5.2-5.5	Turkish buyer
BC	IDIL	28,429	1994	JAPAN	B&W	C 4x30t	2.4	Undisclosed buyer
BC	PANVISION (log fitted)	28,253	2011	JAPAN	B&W	C 4x30.5t	6.5	Middle Eastern buyer, ss/dd/BTWS due May 2021
BC	OCCITAN BARSAC (log)	27,112	2003	ARGENTINA	B&W	C 4x30t	3.3	Syrian bu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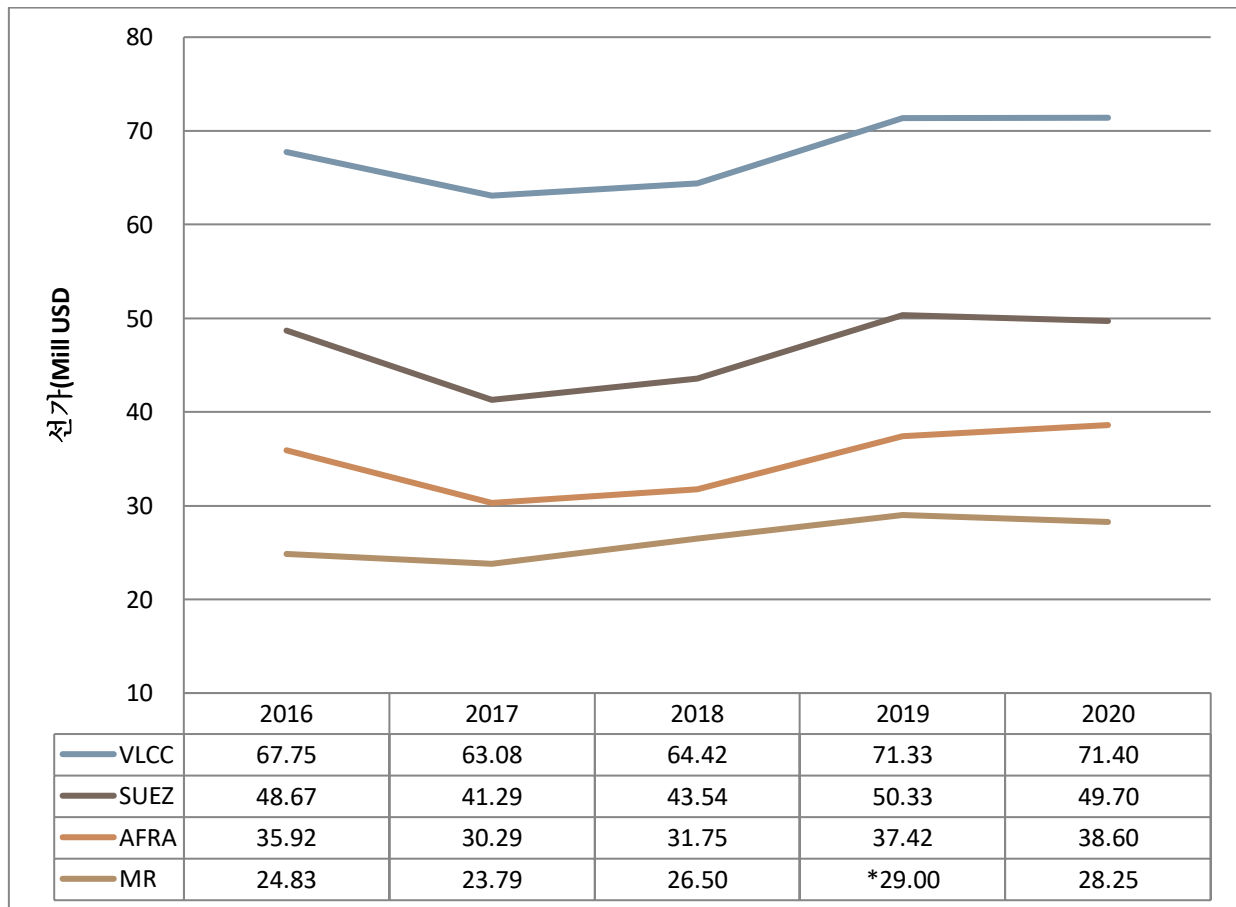
III. TANK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VLCC 310K	67.75	63.08	64.42	71.33	71.40
	-16.15%	-6.89%	2.11%	10.73%	0.09%
Suezmax 160K	48.67	41.29	43.54	50.33	49.70
	-18.34%	-15.15%	5.45%	15.60%	-1.26%
Aframax 105K	35.92	30.29	31.75	37.42	38.60
	-21.24%	-15.66%	4.81%	17.85%	3.16%
MR 51K <small>*18 년까지는 49K 기준</small>	24.83	23.79	26.50	*29.00	28.25
	-10.35%	-4.19%	11.38%	9.43%	-2.59%

□ TANKER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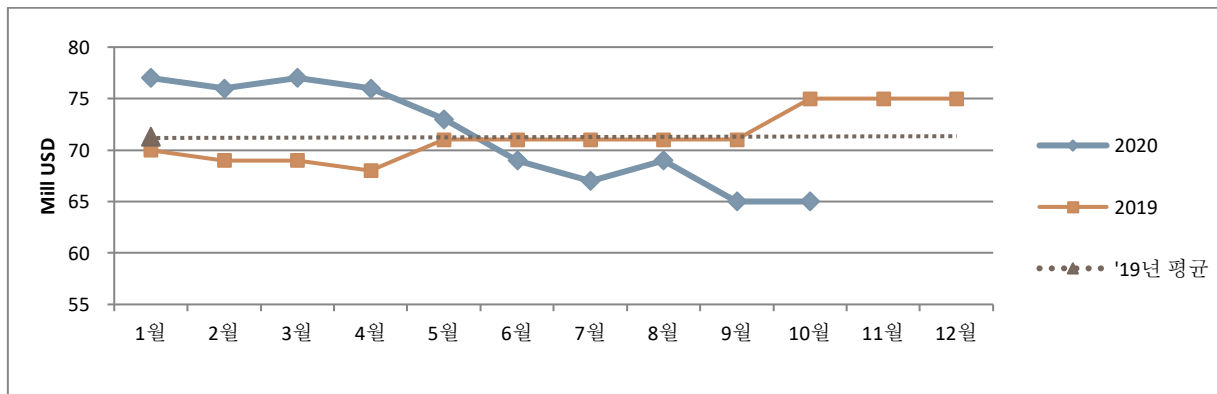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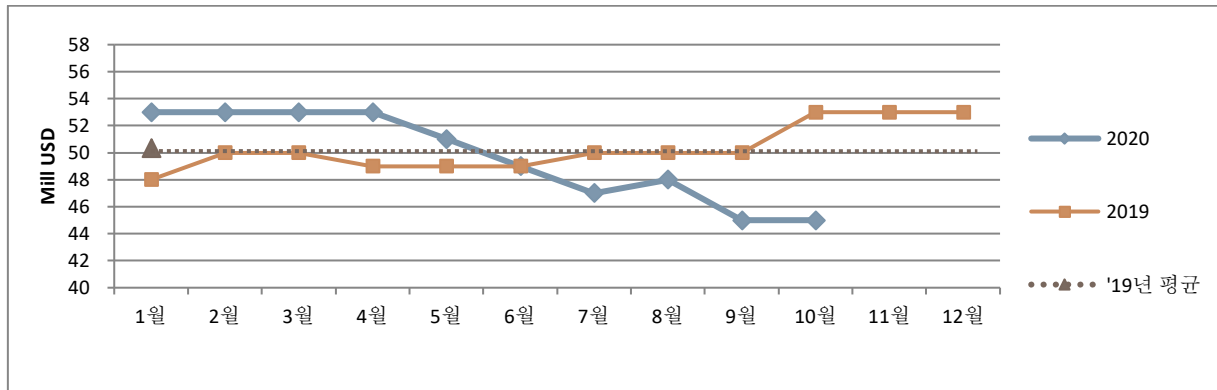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2020	VLCC 310K	선가	77.00	76.00	77.00	76.00	73.00	69.00	67.00	69.00	65.00	65.00			71.40
		전월대비	2.7%	-1.3%	1.3%	-1.3%	-3.9%	-5.5%	-2.9%	3.0%	-5.8%	0.0%			-
		전년대비	10.0%	10.1%	11.6%	11.8%	2.8%	-2.8%	-5.6%	-2.8%	-8.5%	-13.3%			0.1%
	SUEZ 160K	선가	53.00	53.00	53.00	53.00	51.00	49.00	47.00	48.00	45.00	45.00			49.70
		전월대비	0.0%	0.0%	0.0%	0.0%	-3.8%	-3.9%	-4.1%	2.1%	-6.3%	0.0%			-
		전년대비	10.4%	6.0%	6.0%	8.2%	4.1%	0.0%	-6.0%	-4.0%	-10.0%	-15.1%			-1.3%
	AFRA 105K	선가	41.00	42.50	42.50	42.50	40.00	37.50	36.00	36.00	35.00	33.00			38.60
		전월대비	0.0%	3.7%	0.0%	0.0%	-5.9%	-6.3%	-4.0%	0.0%	-2.8%	-5.7%			-
		전년대비	17.1%	21.4%	21.4%	21.4%	14.3%	1.4%	-5.3%	-5.3%	-7.9%	-19.5%			3.2%
	MR 51K	선가	30.00	31.00	31.00	30.00	28.00	27.50	26.50	26.50	26.00	26.00			28.25
		전월대비	0.0%	3.3%	0.0%	-3.2%	-6.7%	-1.8%	-3.6%	0.0%	-1.9%	0.0%			-
		전년대비	7.1%	10.7%	10.7%	7.1%	0.0%	-5.2%	11.7%	11.7%	10.3%	13.3%			-2.6%
2019	VLCC	70.00	69.00	69.00	68.00	71.00	71.00	71.00	71.00	71.00	75.00	75.00	75.00	71.33	
	SUEZ	48.00	50.00	50.00	49.00	49.00	49.00	50.00	50.00	50.00	53.00	53.00	53.00	50.33	
	AFRA	35.00	35.00	35.00	35.00	35.00	37.00	38.00	38.00	38.00	41.00	41.00	41.00	37.42	
	MR	28.00	28.00	28.00	28.00	28.00	29.00	30.00	30.00	29.00	30.00	30.00	30.00	29.00	

VLCC-310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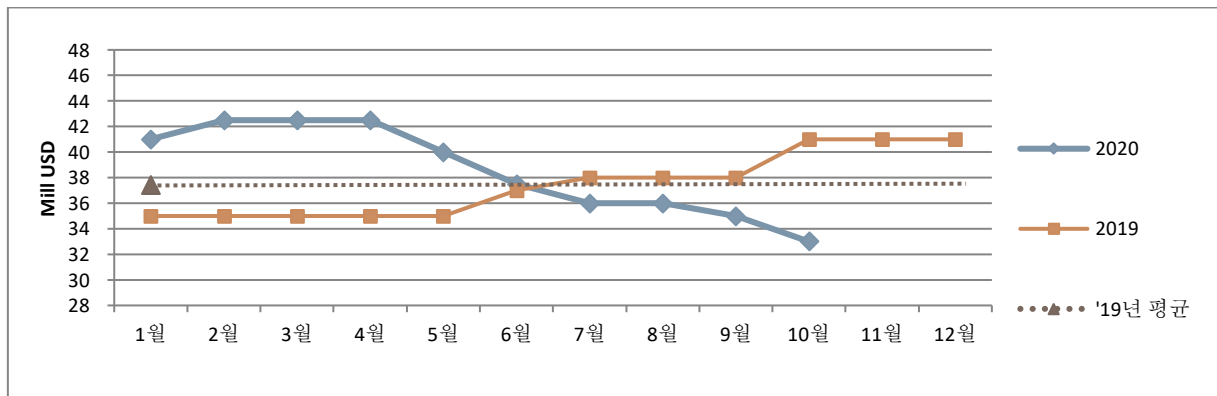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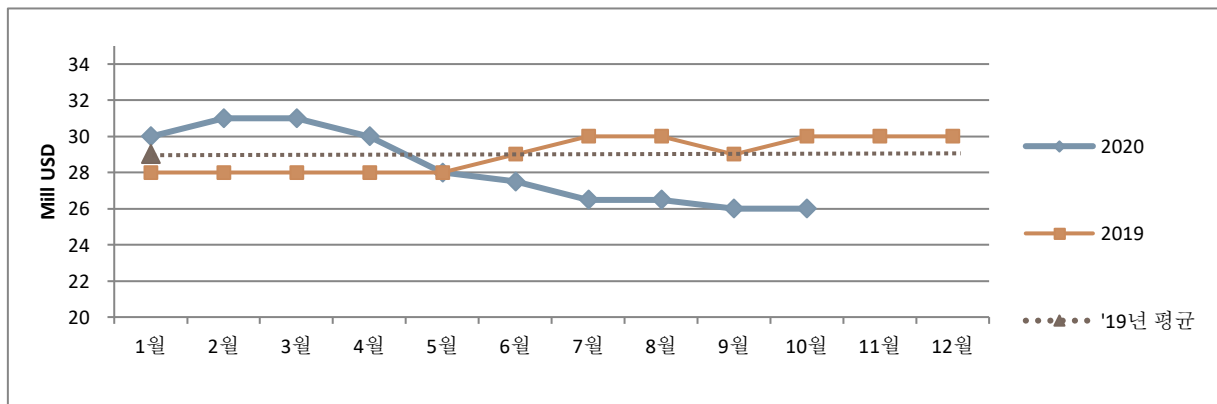
□ SUEZMAX-160K



□ AFRAMAX-105K



□ MR-51K



III. TANKER

IV-1. Tanker Sales Reported

1) TANKER

TYPE	VESSEL	DWT	BLT	YARD	M/E	IMO	PRICE	REMARKS
TANKER	SEA LION	318,778	2003	KOREA	B&W		27	Chinese buyer
TANKER	OLYMPIC LIBERTY	309,449	2003	KOREA	B&W		26.3	Greek buyer (Monte Nero)
TANKER	ADS PAGE	299,164	2002	JAPAN	B&W		25.5	Undisclosed buyer, Scrubber fitted
TANKER	MINERVA EMMA	107,197	2003	JAPAN	B&W		13	Undisclosed buyer
TANKER	CARINA	47,962	2010	JAPAN	B&W		14.4	Greek buyer (Spring Marine)
TANKER	UACC IBN AL ATHEER	45,994	2003	JAPAN	B&W		8.15	Undisclosed buyer
TANKER	HIK	39,999	2005	CROATI A	B&W		7.75	Undisclosed buyer, shallow drafted, trading dirty
OIL/CHE M	MALHARI	13,149	2010	KOREA	MAN	2	6.2	Vietnamese buyer

2) CONTAINER, REEFER, ETC

TYPE	VESSEL	DWT	BLT	YARD	M/E	CAPA	UNIT	PRICE	REMARKS
CONT	APL ENGLAND	67,987	2001	KOREA	B&W	5510	TEU	12	European buyer
CONT	MARIA SCHULTE	42,141	2006	CHINA	B&W	3534	TEU	7.5	Greek buyer (Lomar shipping)
CONT	TANJA RICKMERS	24,500	2009	CHINA	B&W	4253	TEU	10.5	Greek buyer (Costamare), BWTS fitted
CONT	CAP PAPATELE	13,950	2008	CHINA	ETC	1022	TEU	3	Chinese buyer (Goto Shipp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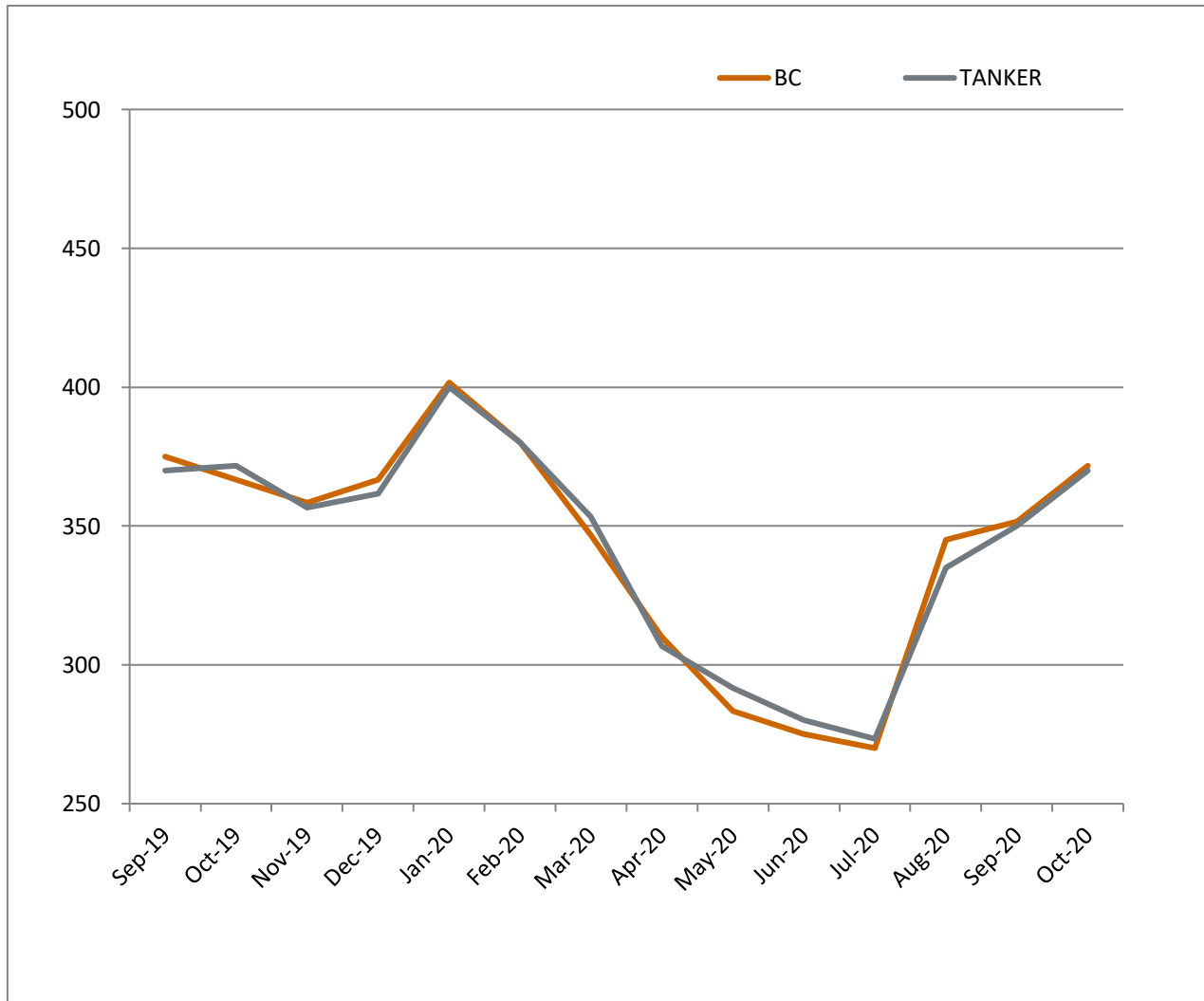


IV. DEMOLITION

1) 선가

해체선가 (US\$/LDT)	2018 평균		2019 평균		2020 평균		2019 년 10 월		2020 년 10 월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432.92	18.5%	396.39	-8.4%	334.00	-15.7%	371.67	370.00	5.7%	-0.4%
BC	440.63	18.8%	398.75	-9.5%	333.50	-16.4%	366.67	371.67	5.7%	1.4%

❖기준 : 인도해체선시장(USD/LDT), 증감율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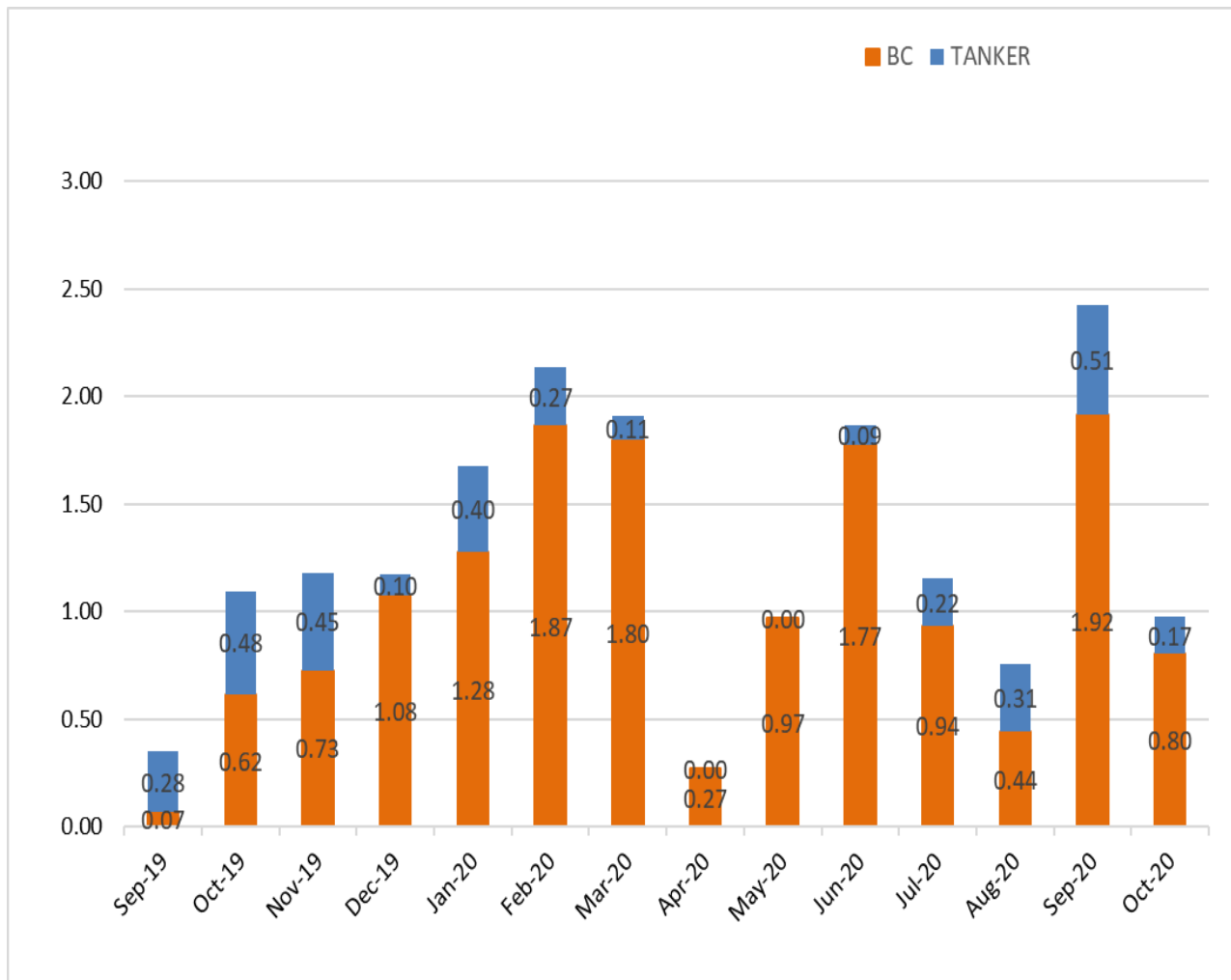


IV. DEMOLITION

2) 해체선누적현황

해체선 총량	2019 년		2020 년 누적				2019 년 10 월		2020 년 10 월			
	Million DWT	No.	Million DWT	누적율 (전년대비)	No.	누적율 (전년대비)	Million DWT	No.	Million DWT	증감율 (전년대비)	No.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3.54	97	2.09	59.1%	65	67.0%	0.48	14	0.17	-63.5%	5	-64.3%
BC	7.45	116	12.05	161.8%	124	106.9%	0.62	8	0.80	30.4%	8	0.0%

3) 해체선총량 (MILLION DWT)



IV. DEMOLITION

V -1. Demolition Sales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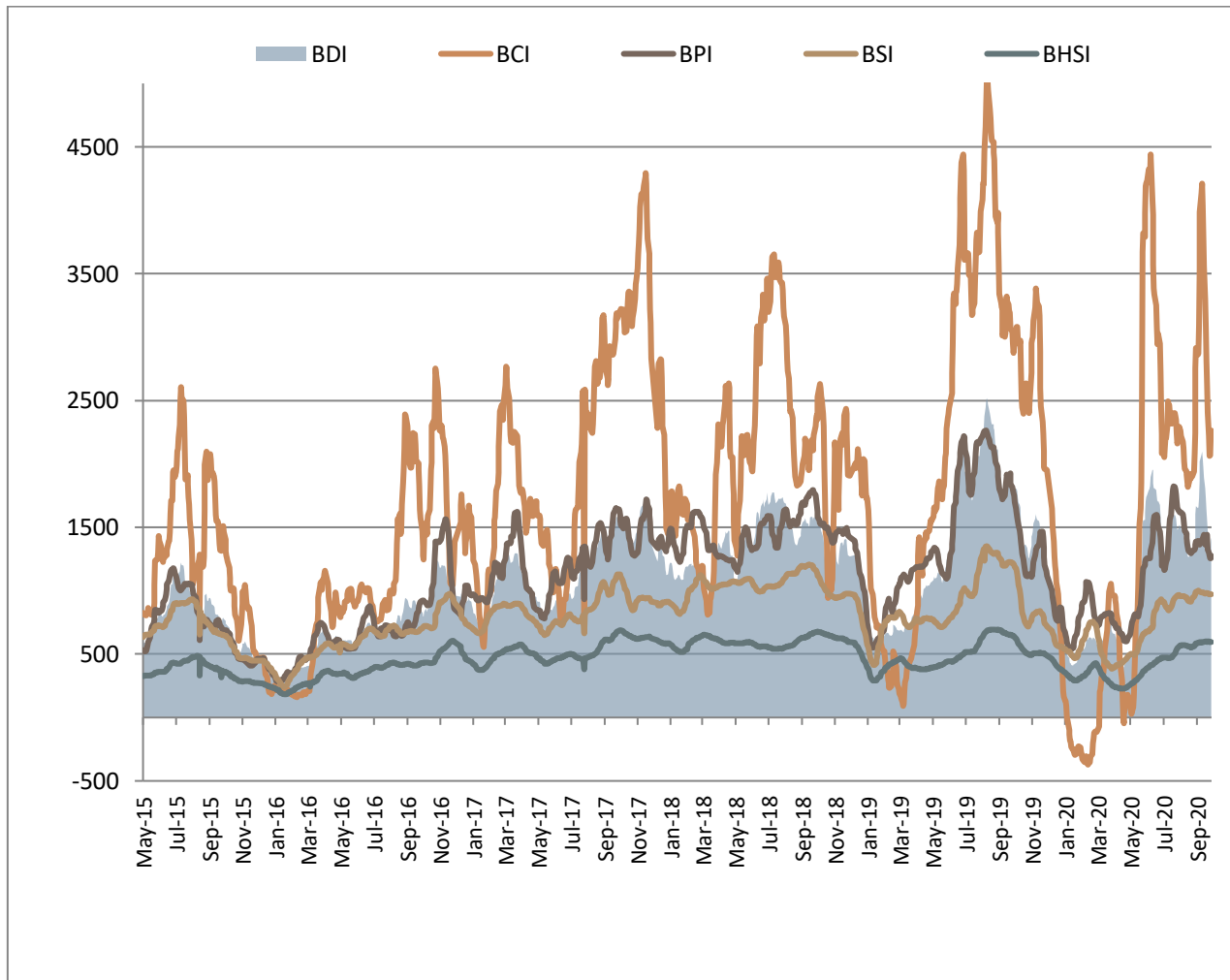
TYPE	VESSEL	DWT	LDT	BLT	YARD	M/E	PRICE (usd/ldt)	REMARKS
BC	WELVIEW	94,450	16,916	1989	JAPAN	B&W	385	Pakistan
BC	GLOBULUS	49,575	10,641	1995	JAPAN	MITSU	365	India, Green recycling
BC	BEST LEADER	45,292	7,065	1995	JAPAN	MITSU	387	Pakistan
BC	POLINA	29,531	6,692	1986	JAPAN	SULZ	386	Pakistan
BC	LUCKY SEAMAN	26,455	5,751	1991	JAPAN	B&W	348	Bangladesh
CONT	LILA ATHENS	25,850	9,502	2000	CHINA	B&W	388	Pakistan
GC	SPAN ASIA 1	6,764	3,144	1982	GERMANY	MAK	361	Bangladesh
RORO	ROCKIES HIGHWAY	12,828	11,500	2006	JAPAN	B&W	370	India, Green recycling
TANKER	ALMADA	100,000	17,002	1998	KOREA	B&W	390	Pakistan
TANKER	BITUMEN QUEEN (bitumen)	4,156	1,373	1981	NETHERLAND	WART	210	India



V . KEY INDICATORS

1) Baltic Index

	2020-10-23	2020-10-16	CHANGE	5 Year High	5 Year Low
BDI	1415	1477	▼-62.00	2518	290
BCI	2261	2406	▼-145.00	5043	-372
BPI	1274	1323	▼-49.00	2262	282
BSI	972	976	▼-4.00	1351	243
BHSI	597	599	▼-2.00	692	183





V . KEY INDICATORS

2) Bunker Price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Change)	Singapore		Rotterdam		Houston	
IFO380	340.50	▼-4.00	316.00	▲0.50	305.50	▼-4.00
MGO	346.00	▼-11.50	339.00	▼-4.50	369.00	▼-3.00
LSMGO	344.00	▼-7.50	338.00	▼-4.50	-	-
VLSFO	290.50	▲0.50	263.00	▲6.00	262.50	▼-3.50

❖기준일 : 10 월 23 일 기준

3) Exchange Rate

구분	2020-10-23	2020-10-16	CHANGE
미국 달러	1134.10	1144.60	▼-10.50
일본 엔(100)	1081.28	1086.22	▼-4.94
유로	1340.68	1340.04	▲0.64
중국 위안	170.40	170.66	▼-0.26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

VI. STL NEWS & INFORMATION

[시사상식] 브이노믹스 (V-nomics)

브이노믹스는 '바이러스(VIRUS)'의 V 와 '경제(ECONOMICS)'를 결합시킨 단어로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시대에 부상한 '2021년 신축년 10대 트렌드' 가운데 하나로 꼽은 키워드이다. 이는 '바이러스가 바뀌놓은, 그리고 바꾸게 될 경제'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브이노믹스는 바이러스(V)가 초래한 경제로 양적 축소가 불가피하며, 질병 확산이 완화될 경우 회복소비가 나타날 수 있으나 회복저축도 크게 증가하게 된다. 여기서 회복소비란 외부요인에 의해 억눌렸던 소비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현상을 일컫는데, 실제로 2020년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소비가 급감했다가 전염 확산세가 점차 누그러졌을 때는 소비 폭발로 이어진 바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관련기사] '바이러스가 움직이는 경제' 브이노믹스

해마다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예측해온 김난도 서울대 교수(소비자학)가 코로나 19 시대에 내년의 핵심 키워드로 '브이노믹스'(V-NOMICS)를 꼽았다. 이는 바이러스(VIRUS)의 첫 영문자 '브이'에서 시작한 단어로, '바이러스가 바뀌놓은, 그리고 바꾸게 될 경제'라는 뜻이다.

김난도 교수는 13일 '트렌드 코리아 2021' 출간을 맞아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브이노믹스는 코로나를 염두에 두고 기획한 키워드"라며 "산업이 어떻게 회복하고 소비자 선호는 어떻게 바뀌는지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경기는 전반적으로 케이(K)자형 양극화를 그릴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업종별로 다양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 19 시대에 공동체 의식과 관용, 정부 역할의 균형 감각, 조직의 변화 대응 역량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음절을 모아 내년의 10대 키워드를 표현하는 단어는 '카우보이 히어로'(COWBOY HERO)로 정했다. 백신의 기원이 된 소의 해에 현실을 직시하되 희망을 잃지 말자는 뜻을 담았다. 김 교수는 "날뛰는 소를 마침내 길들이는 능숙한 카우보이처럼 코로나 19를 길들이는 작은 영웅들의 활약을 기다린다는 취지"라며 "내년에는 백신이 나와서 이 사태가 종식되기를 바라는 희망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VI. STL NEWS & INFORMATION

구체적으로는 COMING OF 'V-NOMICS(브이노믹스), OMNI-LAYERED HOMES(레이어드 홈), WE ARE THE MONEY-FRIENDLY GENERATION(자본주의 키즈), BEST WE PIVOT(거침없이 피보팅), ON THIS ROLLERCOASTER LIFE(롤코라이프), YOUR DAILY SPORTY LIFE(#오하운, 오늘하루운동), HEADING TO THE RESELL MARKET(N 차 신상), EVERYONE MATTERS IN THE 'CX UNIVERSE'(CX 유니버스), 'REAL ME': SEARCHING FOR MY OWN LABEL(레이블링 게임), 'ONTACT', 'UNTACT', WITH A HUMAN TOUCH(휴먼터치)다.

눈길을 끄는 것은 'MZ 세대'의 약진이다. MZ 세대는 1980년대 초에서 2000년 사이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Z 세대를 아우르는 단어다. 김 교수는 '소비의 롤러코스터를 탄 자본주의 키즈'로 대변되는 이들이 돈과 소비에 편견이 없는 새로운 소비세대로 유행을 선도하고, 비즈니스 방향을 주도하며, 브랜드 흥망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MZ세대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레이블링 게임에 몰두하고, 신상품보다 중고마켓을 더 애용하면서 취향 공유와 신종 재테크가 합쳐진 새로운 중고마켓이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언택트'(비대면) 키워드가 강조되는 현실에 대해선 "코로나 19 사태 와중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의 자아가 분리되는 부분은 계속 생겨난다"며 "나는 누구인지 고민하는 정체성 문제가 온라인 시대에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브이노믹스 이외에 나머지 키워드들은 코로나 19가 아니었어도 중요한 문제들"이라며 "트렌드 속도가 빨라진 것이지 없던 트렌드가 생겨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출처 : 이코노텔링]



VI. STL NEWS & INFORMATION

STL GLOBAL Co., Ltd.

101-1401,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Tel: +82-2-776-0840 (Rep.) Fax: +82-2-776-0864
 E-mail: seoul@stlkorea.com
 www.stlkorea.com

| **SALE & PURCHASE**

Neal S.I. Kwon (권순일 상무)
 Senior Director
 Tel. 070-7771-6410
 Mob. 010-9496-0523
 snp@stlkorea.com
 neal@stlkorea.com (Personal)

| **CHARTERING**

Sancho Kim (김현진 이사)
 Director
 Tel. 070-7771-6404
 Mob. 010-5756-9378
 snp@stlkorea.com
 sancho@stlkorea.com(Personal)

| **RESEARCH**

Anna Lee (이혜란 과장)
 Manager
 Tel. 070-7771-6403
 Mob. 010-2258-5561
 snp@stlkorea.com
 anna@stlkorea.com(Personal)

Claire C.W. Ji (지차욱 차장)
 Deputy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1
 Mob. 010-6625-9785
 snp@stlkorea.com
 claire@stlkorea.com(Personal)

Mike Hong (홍창목 부장)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7
 Mob.010-4855-8055
 snp@stlkorea.com
 mikehong@stlkorea.com
 (Personal)

| **AGENCY OPERATION** (오수현 차장 Tel. 070-7771-6402)

| **FERROALLOY LOGISTICS** (안지영 차장 Tel. 070-7771-6405)

| **WAREHOUSE MANAGEMENT** (진정식 과장 Tel. 070-7771-6406)

E-mail. operation@stlkorea.com

에스티엘 지투어 (www.stlgtour.com)
 Tel. 1661-8388 (Rep.) Fax. 02-6499-8388
 E-mail. tour@stlgtour.com

| 기업/일반 단체 (이현성 부장 Tel.070-4800-0153)
 | 항공 예약 (김영하 실장 Tel.070-4800-0151)

전남요트아카데미 (www.stlyacht.com)
 Tel. 061-247-0331 Fax. 061-247-0333
 E-mail. academy@stlyacht.com

| 보트/요트 면허취득 (이진행 실장 Tel.010-2777-4027)